



종교 서적의 진화 혹은 퇴화?

여전히 많은 서점들이 전통 종교의 분류체계를 따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종교일반 등의 항목으로 서적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 독자의 종교 서적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정태적 분류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종교들의 경계를 허무는 독서 행태이다.

글_박상언

그 책이 불교 서적으로 분류되든,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되든 간에 책의 내용에 호감을 느끼는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서적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불교 서적인 틱낫한의 《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등은 기독교인과 불교도는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등도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서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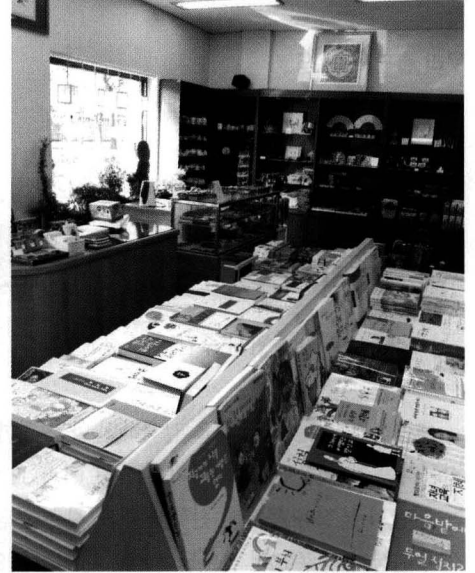
혹자는 이러한 최근의 독서 행태는 무종교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특정 종교인은 해당되는 종교 서적에 관심을 둘 뿐, 자신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 서적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이 기독교 서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불교도가 불교 서적에 더 많은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독서 행태는 이처럼 단순한 시각으로 설명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종교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관심을 보이는 종교서적들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르시시즘적 종교서들의 위험성

최근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종교 서적들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종교 서적과는 주제와 내용에서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기성 종교의 교리나 신념체계를 다루는 저서들보다 일상의 물음, 특히 인간의 내면적 심성을 다루는 종교 서적들이 널리 관심을 끌고 있다. '감정 조절', '행복한 삶', '진정한 자기 발견', '죽음의 의미' 등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서적들은 종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상관없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 책들은 과도한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로 축약되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하려는 현대인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체일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은 한국사회에 경제적 풍요라는 선물과 더불어 무한 경쟁 사회에 함몰된 자기 상실의 부정적 결과를 안겨 주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야만적 생존 경쟁의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일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그 불안을 잠재워줄 성스러운 뉘트가 필요

한 것이다.

어쩌면 그 불안은 세계에 던져짐으로써 본질적으로 형성되는 근본적인 불안인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다루는 종교 서적은 진중한 철학적 사유의 성찰을 바탕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서점가에서 인기를 얻는 종교 서적은 지나치게 현대인의 지친 마음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을 직시하고 변화시키려는 고민보다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심성의 개조에 많은 관심이 몰려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과 같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류의 서적들, 그리고 영성의 개념으로 포장되어 쏟아져 나오는 명상서적들은 그것이 종교 서적으로 분류되든 안 되든 간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며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의 형성을 무디게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종교서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종교 서적들과 다른 측면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종교 서적이 있다. 대표적인 종교학자로 평가받는 오강남 교수와 정진홍 교수를 중심으로 출판된 종교학 서적들이다. 오강남의 《예수는 없다》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정진홍의 《열림과 닫힘》은 종교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사유 방식과 관점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이슬람문화와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서적이 대중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서적은 인문학서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종교 또는 종교문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종교 서적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책이 왜 대중의 관심을 끄는가 하는 점이다. 그 주된 이유는 그동안 종교 자체에 대한 편견 혹은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기성 종교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이런 책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타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간에 알기 힘든 언어와 논리모임을 감추고 있는 타자를 이해하기란 너무나 어렵고 무성한 소문과 추측만 난무하게 된다. 특히 종교가 그렇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종교인이고, 그 둘 가운데 하나는 불교도나 기독교인일 만큼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에 비해 다소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종교와 그 종교가 빚어내는 문화를 들여 보는 책은 그리 흔한 편은 아니다. 그러니 그런 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에 출판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분명히 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경하기 그지없는 책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이 독서계에 높은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까이 존재하는 종교라는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고 싶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종교 서적 출간 기대

최근 서점가에서 부는 종교 서적의 인기는 한편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계발서나 행복한 삶의 본질과 실현을 제시하는 종교 서적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기초하고, 다른 한편으로 낯선 종교문화의 소개, 그리고 종교문화의 독법과 종교 이데올로기의 해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바람, 곧 현세적 구원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면, 후자는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친숙한 것에 대한 공정한 시선을 요구하는 대중의 관심이 사회에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출판사로서는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들려고 애를 쓰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읽은 만한 책이 많이 출판되기를 바랄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공동체적, 혹은 미래지향적 종교성에서 개인주의적, 혹은 현실주의적 종교성으로 변화된 한국의 종교문화를 출판계가 제대로 짚고 있다는 점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런 종교문화의 변화에 휩쓸려 출판계가 종교의 상품화, 혹은 영성의 상품화를 부추킨다면, 종교는 여전히 사회로부터 공정한 평가와 대접을 받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한국의 종교문화는 단지 소문으로만 대중에게 전파되다가 사장되고 말 것이다. 종교문화를 진지한 고민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작가와 그 저술을 기꺼이 출판하는 용기 있는 출판사를 기대해본다. ❏

박상언님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서강대학교 연구교수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